



海外市場情報

中共, 半導體産業을 育成

— 美·日 技術로 品質과 性能 향상에 —

近代化의 물결을 타고 있는 中共은 電子産業의 根幹이라고 할 수 있는 半導體産業의 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中共의 半導體産業이 대규모적이고 고도한 생산에 도달하기까지는 수많은 難關이 있다.

업계 관측에 의하면 中共의 半導體 생산고는 연간 1,500만 回路라고 한다. 그 생산량의 대부분이 TV, Radio, 電子時計用이지만 최근에는 컴퓨터 업계가 대규모의 需要者로 등장하고 있다. LSI와 Microprocessor의 생산을 시작하였다고 하는 소식도 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의 工場은 아직 좋지 않은 환경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中共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결여, 精度가 높은 半導體 제조에 필요한 고도 생산기술을 아직 확보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생산고가 낮고 Wafer와 Transistor의 생산고는 목표에 대해서 각각 약 10%, 40%인 것으로 보여진다.

Fairchild Semiconductor社의 中共販賣課長은 「3인치와 4인치의 Chip을 中共에서 제조하는데는 美·日의 20배 Cost가 든다. Top end의 생산도 존재하지만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품질과 장치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中共은 美·日, 특히 美國 메이커의 기술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고품질 Silicon, 최첨단 Ceramic, PCB는 中共에 수출될 경우 COCOM(Coordinating Committee for Export to Communist Area: 對共產圈輸出統制) 규제에 저촉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제품이다.

美國 정부는 對 中共 技術 수출의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규제가 아직 풀리지 않았음에 대하여 美측 메이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현재 中共은 半導體 제품의 대부분을 日本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나 美國 메이커도 끼어 들려고 노력중이다. 84년에 National Semiconductor社가 추정 가격 200만弗로 上海 Semiconductor社에 中古 생산 라인의 하나를 賣却한 외에 北京과 上海에서 진행되고 있는 半導體 政策에도 미국 메이커가 참가하고 있다.

주로 美國으로부터 수입된 장치를 갖춘 Linear IC의 생산 라인이 현재 건설되고 있고, 완성 후에는 年産 2,400만개의 Linear IC用 Wafer가 생산되리라 한다.

또한 中共은 작년 12월에 Intel社와 同社 86-310과 286-310 System의 Kit 조립에 관해서 1,200만弗에서 1,400만弗의 계약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이 두 System의 제조는 香港 근처 深圳特別經濟區의 工場에서 행해질 예정이다. 이 계약에 의해 中共은 기술을 손에 넣고 Intel은 部品 및 기타 제품의 장기적인 공급 메이커가 되는 기회를 획득하였다.

업계 전문가의 대부분은 中共 市場에 있어서 美國 메이커가 日本 메이커보다 우세한 입장에 있다고 보고 있다. 그 이유는 中共이 전체 電子産業의 원조를 日本만에 한해서 의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홍콩을 본거지로 하는 Silver the Investment社의 한 관계자는 「中共은 美國製의 組立 시스템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열심히 교육을 받고 있다. 中共과 美國 메이커의 Joint Venture에는 최신식의 장치가 설치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세를 설명하였다.

美的 Video Tape 需要 急増

— 금년 1억 2,000만개, 가격도 安定 —

과거 2년간에 걸친 美國 VTR市場의 폭발적인 성장을 배경으로 空 Video Tape의 需要도 급증되어 50社 이상의 메이커에 있어서 84년도 賣上高는 9,200만개 이상이 되었다.

EIA(美電子工業會)의 최근 예측에 따르면 금년 賣上高는 약 1억 2,200만개에 달할 전망이다. 금년의 업계 동향에 관해서 Tape가격 안정화를 기대해서 메이커간의 Shake out(경합에 의한 企業 脱落)을 예상하는 소리가 업계 관계자간에는 강하다. BASF의 販賣課長은 「현시점에서는 가격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 85년은 작년 이상으로 안정될 것이며, 업계는 성숙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Maxell의 판매과장도 가격 안정을 전망하고 있으나 「제품에 따라서는 품귀현상이 나타날지도 모른다. 수요는 아직 피크에 달하지 않았으나 海外 공장은 이미 풀 가동인 상태」라고 말하였다.

JVC(日本 Victor)의 G. 솔츠氏は 가격 저하와 VTR의 높아지는 需要에 따라 특정 Video Tape의 품귀가 1/4分期 중에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Tape의 가격은 비교적 안정되어 갈 것이며 가격 저하 현상은 금년 내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메이커측에서는 Shake out에 의해 市場이 안정될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3M의 磁氣 Audio/Video사업부 판매부장에게 의하면, 금년은 Share 쟁탈전이 격심해지고, 신제품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응하지 않는 中小 메이커가 市場에서 축출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이 희생되는 것이, 마찬가지로 Audio Tape의 Shake out時에 탈락하였던 機械 메이커였다고 지적하였다.

어느 대 메이커의 한 간부는 「현재 美國 시장에는 50~60社의 Video Tape 메이커가 경합하고 있지만, 그 중 시장에서 生存할 수 있는 것은 Sony, TDK, Maxell, Kodak처럼 강력한 판

매력을 갖고 있는 메이커뿐이다. 가격이 안정되려면 저가격만으로 攻勢를 펼치는 메이커는 市場에서 밀려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활발한 美國의 AM Stereo 動向

— 受信機 발표 계속, 서서히 熱戰 —

全美 라디오放送業者協會(NRBA)는 85年 부터 AM Stereo가 본격적으로 활발해질 것임을 발표하였다. 대규모의 受信機 메이커 대부분이 금년 AM Stereo 受信機의 發賣를 계획하고 있으며 放送局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갈 것으로 보인다.

NRBA가 최근 발표한 調查報告에 의하면, 대규모 受信機 메이커 모두가 금년 AM Stereo관련 기기의 판매를 예정하고 있다. 自動車 메이커에서도 대규모級은 모두 85年 Model에 AM Stereo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클라이슬러社는 자동차 메이커 중에서도 AM Stereo에 아주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85年 모델의 Car Stereo에 대해 3분의1을 AM Stereo로 할 예정으로, 최상위 2개 모델에 대해서는 AM Stereo를 표준 裝着한다.

AM Stereo를 첨가하는 것에 따른 소비자의 부담 증가는 20~40弗로 아주 작기 때문에 同社는 AM Stereo의 장래에 자신을 갖고 있다.

86年 모델에서는 受信機 대부분을 AM Stereo로 할 계획이며, 86年の AM Stereo의 賣上은 금년의 2배로 신장될 전망이다.

GM社에서도 모델 대부분에 AM Stereo를 Option으로 하여 최상위 모델에 장착한다. 同社의 子會社격인 Delco에서는 금년도 AM Stereo 가격이 84년보다 60弗 전후로 낮아져서 판매량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대 자동차 메이커 중에서 AM Stereo에 아주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진 Ford社에서도 Option으로 85年 전체 모델에 AM Stereo를 계획하고 있다.

受信機 메이커측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三菱

電機는 폭스바겐, 클라이슬러, 볼버, American Motors, 三菱 Motors 등 대自動車 메이커에 Car Stereo를 공급하고 있는데, 금년은 AM Stereo가 전체의 10~15%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Sears, J.C. Penny 등 대규모 量販 체인에 受信機를 공급하고 있는 어빙社도 AM Stereo가 소비자에게 20~40弗 정도의 Cost증가 요인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으며 금년부터 그 판매를 개시한다.

셔우드社는 금년에 2機種의 AM Stereo를 발매, Car Stereo 전체의 약 20%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정용 AM Stereo에 대해서도 판매를 검토중이다.

Pioneer는 車載用 1機種이지만 기회를 보아 기종을 추가한다. 가정용에 대해서는 Adaptor의 판매가 되어, 종래 제품보다 40弗 정도의 가격 상승이 된다. Sony, Sansui, 칸 등 3社를 제외하고, 전체의 受信機 메이커가 Motorola방식의 AM Stereo를 채용하였으며, 放送局측도 同方式으로 추진해 가는 외에, NRBA에서는 은연중에 Motorola方式이 AM Stereo의 표준 방식이 될 것임을 지적하였다.

美 Perscom 周邊機器 市場에 그늘

— 과잉 在庫, 후반 회복에 기대 —

美國의 Personal Computer 周邊機器 市場에서는 금년 전반기의 매상이 일정한 대신 이익률이 계속 저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후반에는 완만한 회복이 기대되는, 한마디로 어려운 1년이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Perscom업계의 성장률은 84년 전반기의 大好調로부터 Pace down되었기 때문에 주변기기 메이커는 과잉 在庫를 안게 되었다. Franklin Computer 및 Victor Technology의 會社更生法 신청으로 상징될 수 있는 Perscom메이커의

沒落은 주변기기 메이커를 포함한 업계 전체를 생산 과잉으로 몰아 갔다. Inforcorp社의 B.F. Frank 副社長은 「많은 메이커가 현재의 비즈니스 활동의 倍 이상 레벨로 出荷할 수 있는 생산능력을 갖게 되어버렸다. Perscom市場의 성장을 둔화에 불잡혀 버린 것」이라고 말하였다.

업계 중에서도 84年 후반에 크게 타격을 받았던 곳은 Disc Drive 메이커로서 수많은 기업이 대폭적인 減益을 면치 못하였다.

IBM, 향후 Software 重視의 經營

— 금후 5年間 560억弗 投資 —

최신 美 經濟誌 Business Week에 의하면, 美國 최대 컴퓨터 메이커인 IBM은 금후 5년간 560억弗의 거액을 투자하여 종래의 Hardware 중심의 경영에서 Software 重視의 체제로 대전환시킨다는 것이었다.

이에 의하면 IBM은 금년 2월 1일에 오펠 會長으로부터 에커스 社長으로 移行 신체제를 확립하였다. 이 신체제하에서 과거 5년간에 설비 투자 130억弗, 연구개발비 150억弗로 現資産의 70%에 해당하는 거액을 투입한 IBM은 금후 5년간에 다시 560억弗의 투자를 할 예정이다.

즉 90년까지 총수입을 84년의 460억弗의 2배로 증가시키고, 94년까지 다시 2배로 증가시켜 1,850억弗까지 증가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同誌는 IBM의 전략 목표가 종래의 컴퓨터 機器를 중심으로 한 Hardware부문으로부터 이미 Software 부문을 향한 극적인 전환이 시작되었으며 84년에는 총매상의 약 10%밖에 점유하지 못하였던 Software 관련 매상고를 금후 年 35%의 신장률로 증가시켜 갈 것을 IBM 經營陣은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Software 관련 업체에도 다시 거센 파문이 밀려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